대인신뢰는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가?

A Study on the Fear of Crime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최동주(전주대학교)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 keyword : | fear of crime | interpersonal trust | life satisfaction |

1.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이란 삶 전체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깊은 만족을 뜻하며(유제민, 2012), 전반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생활만족과도 깊이 관련되어있다(조은희, 2001). 생활만족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건강, 경제, 문화, 가족관계, 안전 등 다양한 측면의 만족을 의미한다(성기월 1999).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범죄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에 대한 불안은 쾌적해야 할 삶의 질을 갉아먹고,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강화하게 하며,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통제역량을 저해한다(Jackson & Gray, 2009).

뿐만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Stafford, Chandola, & Marmot, 2007).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한다(Hanslmaier, 2013).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과 직결이 되면서 그 부정적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뢰·규범·네트워크 등으로 정의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자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규범(Coleman. 1988), 연결망(Bourdieu 1982)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신뢰이다(Yamagishi, 1998; Lin, 2001). Fukuyama (1995)는 사회자본이 특정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특정부문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신뢰와 사회자본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신뢰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신뢰의 영역은 크게 대인신뢰와 조직신뢰로 나누어질 수 있다. 대인 신뢰는 개인적으로 상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범위의 신뢰이며, 조직 신뢰는 조직의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Zaheer, 1998).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백은령, 2005),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행복감(happiness)등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이중섭, 2009).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매개변수를 찾고자

하며, 대상 변수로 대인신뢰를 설정하여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대인신뢰는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Stafford, Chandola, & Marmot, 2007). 또한 이웃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네트워크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수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Wilson & Kelling, 1982).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건전한 사회성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곽대경 · 이승철, 2010).

2.2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신뢰의 관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현상 못지않게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나 생활을 위축시키고, 불신감을 조장하며, 각종 보안장치의 설치로 인한 경제비용의 부담 등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인섭 · 김지선, 1996). 반면, 대인신뢰는 사회행위를 통해 상호 호혜적으로 주고받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를 유리하게 귀결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면 사람 간의 신뢰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반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구성원 간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생활만족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일형, 2015). 김찬선(2014)은 사회안전망은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범죄예방설계나 경찰치안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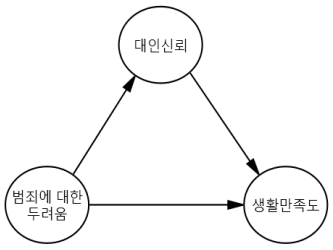
2.3 대인신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인신뢰와 생활만족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구한 결과는 흔치 않다. 그러나 Uslaner(2002)는 미래를 낙관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더 행복한 전망을 가진다고 보고했고, Helliwell(2007)는 동료를 신뢰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하며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임우석(2009)은 노인의 신뢰를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에서 사적 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공적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고, 박영신 · 김의철(2008)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Bjornskov, 2006) 신뢰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신뢰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지역사회의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를 통해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기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7~8월 약 두 달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572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포함된 자료를 제거하고 유효설문지 총 557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분포도는 남성이 230명(41.3%) 여성이 327(58.7%)이다.

3.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서 측정모형분석 및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77)

일반적 특성		빈도수	비율(%)
성별	남	230	41.3
	여	327	58.7
연령	20대	129	23.2
	30대	101	18.1
	40대	142	25.5
	50대	128	23.0
	60세 이상	57	10.2
학력	중졸이하	35	6.2
	고졸	130	23.3
	전문대/대졸	325	58.3
	대학원 이상	59	10.6
	기타	8	1.4
가구총수입	200미만	213	38.3
	200-499	238	42.7
	500만원 이상	105	19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1	3.763	.8359	-.318	-.585
	두려움2	3.940	.8059	-.423	-.499
	두려움3	3.911	.8378	-.459	-.437
대인신뢰	신뢰1	3.231	.601	-.142	.590
	신뢰2	3.365	.622	-.384	1.294
생활만족도	만족1	3.212	.947	-.243	-.268
	만족2	3.002	.980	.077	-.388
	만족3	2.822	1.015	.103	-.458
	만족4	3.031	1.011	-.344	-.300
	만족5	2.466	1.056	.260	-.652

4.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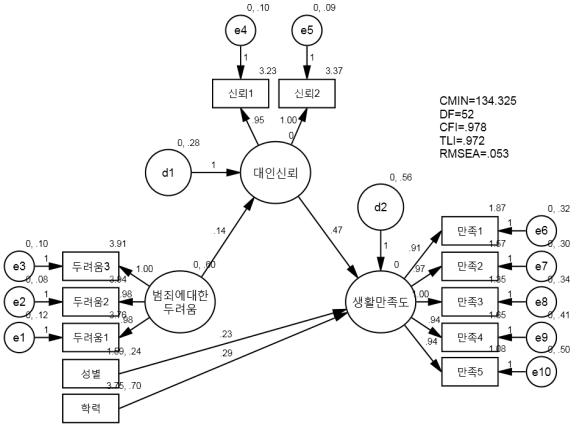
표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인신뢰	생활만족	Cronbach's α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939
대인신뢰	-.232**	1		.806
생활만족도	-103*	256**	1	.893

*p<.05, **p<.01

4.4 측정모형 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3.175(32), p=.000으로 $\chi2$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chi2$ 통계량은 사례 수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CFI, TLI, RMSEA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한 결과 CFI=.986, TLI[1]=.980, RMSEA[2]=.054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측정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2. 구조모형

표 4. 최종구조모델 경로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B	Estimate β	S.E.	C.R.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대인신뢰	.140	.199	.033	-4.223***
대인신뢰	→	생활만족도	.465	.302	.074	6.305***
성별	→	생활만족도	.235	.138	.066	4.109***
학력	→	생활만족도	.294	.295	.040	4.741***

χ^2=133.499, df=51, CFI=.978, TLI=.972, RMSEA=.053, ***p<.001, **p<.01

1) LI와 CFI는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2) RMSEA는 그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이면 적당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and Cudeck, 1993).

표 5. 최종모델의 최종 효과 분해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신뢰구간 (유의수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생활만족도	.065	.000	.065	.033~.110(.009**)

경쟁모델을 통해 선택된 최종모델(완전매개모델)을 성별과 학력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χ2 =134.571, df=52, CFI=.978, TLI=.972, RMSEA=.053으로 나타나, 필요한 요구 적합도를 충족시켰으며 경로계수는 <그림 2>와 표. 4와 같다.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는 총효과가 .065, 직접효과가 .000, 그리고 간접효과가 .065로 나타나 대인신뢰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033~.110**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신뢰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에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5. 결론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서 하위단계에 속하는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인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이 의미는 반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안전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대인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진 상태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은 국정운영평가나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인신뢰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즉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웃, 직장 동료, 점원, 선생님, 경찰, 공무원 등등 주변인들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리라는 예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를 통해서 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신뢰는 독립변수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나 나타났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인신뢰 변수의 중요성과 의미를 말해 주는 결과이다.

참고문헌

[1] 곽대경 · 이승철(2010).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 19(2), 11-46.

[2] 김찬선(2014),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108-118.

[4] 백은령(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성기월(1999).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활동(ADL) 정도와 생활만족도 정도의 비교 ”. 노인복지연구, 19(1), 105-117.

[7] 유제민(2012). “성과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한국 노인의 행복결정 요구 연구”. 청소년 학회, 19(113), 375-404.

[8] 이중섭(2009). “빈곤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소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9]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조은희(2001).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도 및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관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조일형(2015).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4(3), 1-27.

[12] 최인섭 · 김지선(1996).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1-201.

[13]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14] Bjorm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1), 22-40.

[15] Bourdieu, P.(1982). Les rites d'institution.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43, 58-63.
[16]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and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 - 162. Beverly Hills, CA: Sage.
[17]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8] Fukuyama, Frances.(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 Hanslmaier, M.(2013). Crime, fear and subjective well-being: How victimization and street crime affect fear and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0(5), 515-533.
[20] Helliwell, J. F.(2007).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1(3). 455-496.
[21]Jackson, J. & Gray, E.(2009). Functional Fear and Public Insecurities about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0, 1-22.
[22] Stafford, M., Chandola, T. & Marmot, M.(2007).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 2076-81.
[23] Uslaner, E. M.(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Wilson, J. Q., & Kelling, G. L.(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The Atlantic Monthly, 249(3), 29-38.
[25] Yamamura, E., Tsutsui, Y., Yamane, C., Yamane, S., & Powdthavee, N. (2014). Trust and Happiness: Comparative Study Beforeand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26] Zaheer, A., McEvily, B., & Perrone, V.(1998). Does trust matter? Exploring the effects of inter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trust 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Science, 9, 141-159.

저자소개

● 최 동 주(Choi, Dong-Joo)

- 1986년 2월 : 강원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1999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현재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외식문화, WLB, 정신건강
- E-Mail : newham@jj.ac.kr